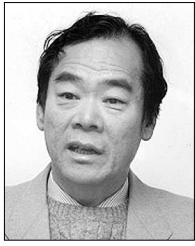




부정식품



이근후

본지논설위원
열린마음클리닉 원장

“날씨가 좋은 날 아침 잠자리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고 손뼉아 해보던 단연코 맨 처음에 손을 꼽아야 할 것은 음식이다.”

중국의 작가 잉어당이 한 말이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음식은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에너지 원이기도 하고 또 그 맛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한다. 만일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천금의 보화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서 어떤 음식이든 음식은 생명유지의 첫손가락으로 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먹거리 부정식품이 듣고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사건들이 몇 있다. 불먹인 조끼, 썩은 생선으로 어묵 만들기, 유독화합물로 더덕 탈색하기, 쇠고기 섞인 고춧가루, 누 가리고 돈을 버는 수작들이 한몫이 아니다. 음식 소비자로써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정식품의 결과가 금방 식중독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해야 나타나는 만성적인 증상들도 있다. 만성적인 증상은 자신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 부정식품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음식과 약품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다. 식품은 생명유지의 근원적 에너지 소스이고 약품은 질병을 앓는 사람에겐 구세주 같은 존재다. 이를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겐 강한 벌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해도 자신이 속여 판 부정식품이나 부정 약품을 몇 년간 먹어야 한다는 판결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음식과 약품의 부정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할로윈’(Halloween)과 관련된 상품들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할로윈 풍속’이 급속도로 문화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이 바로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로 불린다. 우리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재현하는 데에 아무런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이미 할로윈은 신조어로서 한국어 목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유행된 낱고, 생소한 말이 이 땅에 상륙하여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의미부여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할로윈 데이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은 강력한 상업주의 물결을 타고 이 땅에 상륙한 ‘발렌타인 데이’나 ‘크리스마스’가 우리 사회에 유행된 과정과 비슷하다.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할로윈 축제도 함께 들어왔고, 불과 3년 전에는 특급호텔이나 고급 클럽에서만 열렸던 할로윈 축제가 최근에는 영어학원과 유치원은 물론 거의 모든 호텔과 각종 클럽들이 그 상업적 가치를 인식해서 이 날을 이벤트성으로 기획하여 봄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할로윈 데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



불자 세상보기

노희정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강사

우리 놀이문화의 현실

는 것은 이 축제가 주는 즐거움과 상업적 이해가 소비자들에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할로윈 데이는 기원에 있어서 매우 종교적이다. 유럽의 켈트족은 인간의 죽음과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신인 삼하인(Samhain)을 믿었다. 당연히 삼하인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진정시키고, 죽은 자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베풀었다. 이날의 의식은 삼하인 축제가 모든 상인의 날(만성절, Toussaint 혹은 All Hallow Day), 즉 11월 1일의

하루 전날이라 해서 ‘All Hallow’s Eve’라는 명칭으로 바뀐 후에 ‘Halloween’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이 풍속이 생산된 유럽 지역에서는 시들해지고 있는데, 미국에 전파되면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와 함께 3대 명절로 꼽을 정도로 큰 축제가 되었다. 이런 열기는 그대로 우리 사회에 옮겨왔다.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은 예전에는 미국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할지라도 기왕에 미국 문화가 우리 가까이 스며 있는 마당에 굳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해서 거부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제공해 주는 ‘축제와 놀이’의 기회이다. 구획된 도시 속에서 마법에 걸린 듯이 일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축제와 놀이는 긴장을 해소시켜 주며, 단조롭고 재미없는 일상에 삶의 활기를 되살려 준다.

우리사회는 이렇다 할 축제와 놀이가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유행되지 않고 있다. 할로윈 축제가 제공하는 희극적이고 역설적인 축제와 놀이의 이미지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표현되는 삶의 종교적 심각성을 해소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이방의 신화적 동기를 축제의 문화상품으로 재현하여 유행시킨 미국사람들의 문화적, 상업적 전략이 우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쓸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서 할로윈 축제가 제공하는 유머와 재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추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생사 있는 의례로서 화장문화 정립

묘지 폐해 파악 대국민홍보 나서야



김외정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산림은 생명의 원천이다. 산림은 인간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에서의 묘지조성은 묘지 그 자체가 비생산적이든나 국토경관과 환경의 패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제 수도권의 난개발과 산지재해 발생, 탄소배출권 손실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외부효과까지 유발하고 있다.

묘지가 일단 조성되면 사후 단속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 정서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 역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묘지의 조성 실태와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국적 묘지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같은 정보체계를 확보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국민에게 잘 알리는데 매장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산림에서 집단묘지 조성을 억제해 나가기 위해 집단묘지와 납골시설의 산지전용허가조건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적 납골장도 문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에서의 수목장묘시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산림의 보전기능 증진 차원에서 추모전용 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부처간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유림 주변 주민의 인식과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정책도 필요하다.

시설, 제도 보완과 질적향상 시급



박복순

(사)한국장묘문화
협회 사무총장

최근 5년여 동안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펼쳐온 화장장려운동은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에 있어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화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장의 경제적, 실용적 측면만 강조하는 화장장려는 우리나라의 ‘죽음문화’를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화장이라면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쓰레기처리방식에 불과하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다.

또한 납골묘, 납골탑 등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자연경관훼손은 화장으로 인한 매장 못지않은 폐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며 세계적 추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화장문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삶과 죽음을 연결해 주는 의례로서의 화장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므로써 우리의 죽음문화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화장문화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제도의 보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우선 아래 산골제도 단계적 도모



이필도

서울보건대
장례지도과 교수

전통적인 장례방법으로 볼 때 산골은 강이나 산에 화장한 유해를 뿌리는 것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산골을 위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었다. 개정된 장사등예관법에서 매장 및 화장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산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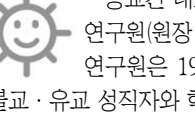
다만 장사등예관법 제6조에서 화장한 유해를 매장하는 경우 매장깊이를 30cm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3조의 사설납골 설치기준에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화장한 유해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이나 산에 화장한 유해를 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급급되는지, 산골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산골의 위험성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산골 장례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70%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반해 산골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자연환경 훼손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 후 산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 화장 및 납골시설의 확충을 병행해 화장장지 관점에서 산골제도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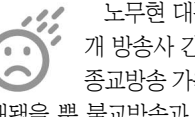
종교간 화해·협력 이끈 시련연구원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해 온 씨든 연구원(원장 김승혜)이 열 번째 생일을 맞았다. 씨든 연구원은 1994년부터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유교 성직자와 학자들이 참여한 연구활동과 매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최해 다종교사회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왔다. 5개 종교인들은 11월 5일 10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10년동안 뿌린 종교간 화해의 씨앗이 싹을 틔워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했다.

장문곡예

청와대 방송사 초청에 불교방송 제외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4일 KBS, MBC, SBS 등 5개 방송사 간부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불교방송 가운데 기독교방송이 유일하게 만찬에 초대됐을 뿐 불교방송과 평화방송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언론사 차별 조정, 종교편향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급박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고, 의전관세상 참석대상을 5명으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전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아간) ☎ 2260-3097~8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 불교학 선행 / 불교사학과 - 불교사 불교사학사학과 - 사회불학 /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3(월) ~ 11. 17(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19(수) 13:00, 본대학원 (지도자과정 전형일시: 2003. 11. 20(목), 14:00)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특 전 - 재학중 해외연수 국내외 상시생애,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
 -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사학교직원, 불교인민학교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 장례문화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및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문화예술대학원(아간) 신입생·편입생 ☎ 2260-3606~7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공연영상예술학과 - 공연예술 - 영화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 한국음악 - 문화재 예술경영학과 - 공연예술경영 - 조형예술경영 예술치료학과 - 미술치료
- 미술치료전공의 경우 미술, 심리학, 사회복지, 유아교육, 특수아동교육 등 관련학과 출신자에게는 서류전형시 우대할 수 있음
- 석사학위취득문제제: 희망에 따라 논문이나 실기를 선택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9(수) ~ 11. 25(화)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9(토) 10: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불교문화대학원(영주·아간) ☎ 054-770-2394-5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지도자과정(불교문화예술, 장례문화, 불교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 불교학 선행 / 불교예술학과 - 국악, 불교미술, 인문학, 장례문화, 불교상담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10(월) ~ 11. 20(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1. 22(토) 14: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특 전 - 각 사찰 종전금속 및 불교단체원, 불교고급대학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 종사자, 문화예술단체 및 장례문화관련단체 임직원 전형에서 우대
-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재직승려, 공무원, 교직원 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 불교의료원(양·한방병원) 의료혜택 및 국내외 상시생애의 기회 제공
- 불교지도자과정(년이상 수료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 지원자격 부여)
- 장례문화학 전공 불교상담전문 4학기 이상 수료자는 소정의 자격인증서(대학원장 영의) 발급

사회과학대학원(영주·아간) ☎ 054-770-2093-4

-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최고경영자과정
- 모집학과: 행정학과 - 정책학, 지방자치 경영학과 - 경영, 전자거래, 세무관리, 무역실무 국제관계학과 - 국제관계 / 법학과 - 법학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2003. 11. 24(월) ~ 12. 5(금),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2003. 12. 6(토) 14:00, 본대학원(진흥관 1층)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특 전 - 행정학과 입학는 필수과목 이수시 정책분석평가사 1급(1차시험 및 2급시험)에 기한점 부여,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취득 및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는 1급 경기 지도자 응시자격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응시자격 부여
- 공무원, 교직원, 군장교, 조계종 재직승려 등에게 졸업사후 장학금 지급
- 육군본부, 포항북경방비지역 사령부의 학·군 제휴 위탁생에게 특별장학금(등록금의 50%) 지급
- 불교의료원(양·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2003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2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이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2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성적 증명서
- 사진 2매 (반명함판)
- 응시료 5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연합회)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04년 1월 4일(일) 오후 1시~오후 5시 (필기시험 및 면접)
- 학교별 일괄접수
- 2003년 11월 17일(월)~11월 29일(토)
- 서류점 →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 서울 종문여자고등학교 (종로구 안국동)
- 2004년 1월 17일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점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연합회 사무국 02-734-9595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포교사 고시 문제집 신청바랍니다.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 : 한정섭법사(금강선원 총재) 정대은스님(해동불교범용대학장)
김계일법사(동산불교대학장) 안경우법사(경북불교대학장)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공지사항 참조 -